**오늘 순종하라 - 케네스코플랜드**

****

† 오늘 순종하라 - 케네스코플랜드

잠2901. 꾸지람을 자주 듣고도 그의 목을 완고하게 하는 그는, 갑자기 무너지며, 치료도 없느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나 즉시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는,

당분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그때 순종하겠다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 앞에 옳은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경고해 두겠는데, 그러한 생각은 극도로 위험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당신이 그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

당신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돌아올 때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죄가 당신의 마음을 굳게 하여

더 이상 당신이 하나님의 촉구하심을 듣지 못하게 되는 단계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가서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즉시 거부하였다.

 물론 그들은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순종에는 어떠한 이유도 타당하지 않다.

불순종은 반드시 당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굳어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듭하여 무시한 결과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다.

그들은 너무나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하신 축복을 주지 못하시고, 두 사람만 남고 모두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신세대들을 일으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으로 삼아 당신의 삶에서 죄가 되는 부분을 적당히 내버려두고 방관하는 삶을 살지 않기 바란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나중에 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하면서 미루지 말라.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중에는 더 어렵다!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충고해 주실 때 그의 지시에 따르라.

그리고 즉시로 순종하라.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님께 순종하기 바란다.

느9;6-37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취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취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사십 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릍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저희가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발하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 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발하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시므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앗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히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삽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난이 심하오며